

# 전남 벼 수매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공개  
전남쌀 40kg 기준 6만 1853원  
전국 평균 가격 보다 3145원 낮아



전남지역 평균 벼 수매가격이 40kg 당 6만 1853원으로 전국 평균(6만 4998원) 대비 3145원(5.1%), 평균 벼 수매가격이 가장 높았던 경기(7만 5428원)에 비해서는 1만 3575원(21.9%)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시 광산구 동곡농협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사들이는 산물 벼 수매가격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수매 가격이 자칫 전남 쌀 도매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경기미 등과 비교해 '저가미'라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민주·전북·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전국평균 수매가격은 40kg 기준 6만 4998원으로, 2020년 대비 5408원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벼 경지면적(2023년 말 기준 16만 3688ha)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에서는 지난해 계약재배를 통해 사들인 벼의 평균 수매가격이 6만 1853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3145원 낮았다.

지난해 경기지역 농협RPC가 확정된 계약재배에 대한 평균 벼 수매가격(40kg)은 7만 5428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전남지역 수매 가격에 견줘 무려 1만 3575원이나 비쌌다.

전남 쌀 수매가격은 강원(6만9020원), 전북

(6만 4040원), 충남(6만 2022원), 경남(6만 2347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형성됐다. 전남 쌀 가격보다 낮은 지역은 충북(6만 1833원), 경북(5만 9847원) 등에 불과했다.

지난해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광주전남농협 RPC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남 쌀 신품과 소독 보전을 위한 제도개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도 전국 최대 쌀 재배면적에서 생산한 22개 시·군의 쌀 브랜드만 165개인데, 쌀 도매 가격은 경기미의 87%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마련이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생산량 대비 저조한 전남 농협의 계약 재배율을 들어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전남 쌀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협 RPC의 누적 적자가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올해 농협 RPC의 당기 손익은 30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년 117억원 적자에 비해 2.6배나 많은 규모이다보니 수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농협RPC의 올해 말 예상 당기 손익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남의 경우 50억원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고 경기(68억 적자), 충남(61억 ), 경북(66억 ), 전북(53억 ) 등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농협중앙회의 소극적 지원 의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벼 수매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2조 2000억원으로 동결했고, 올해 예산도 2조 2000억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가 보호를 위해 강호동 중앙회장이 취임 당시 공약한 '40kg 조곡 가격 7만원 유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원은 "쌀 최대 생산지로서의 거래 교섭력을 높여 안정적인 쌀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최근 '2024년 수확기 농협RPC광주전남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올해 쌀 수급대책과 관련, 지역 RPC별 판매 및 보관 능력을 고려해 계약재배 물량을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 '농사만사'

### 콤바인 트랙터의 위용은 어디 갔는가

농사 기계 감소...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밭농사 기계는 증가

도시 근교 농촌에 살았던 필자의 어린 시절 1980년대 초등학교(국민학교)에는 봄, 가을 두 차례의 '가정실습'이 있었다. 쉽게 얘기해 농번기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2박 3일 정도의 방학이다. 농번기에는 농사일이 워낙 비빔고, 일손이 부족해 초등학교의 고사리손이라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가정실습이 없어질 즈음인 1980년대 후반, 필자는 눈을 가로지르며 벼(나라)를 수확하는 '콤바인'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 낮이고 트랙터이자 탈곡기인 콤바인을 '영접'했을 때, 이 신기한 기계가 마치 탱크 같다는 생각을 했다. 궤도 차륜을 갖춘 모양새도 그렇거니와 물이 질퍽한 눈을 거침없이 달리며 벼를 잘라내 알곡을 쏟아내는 모습이 전장을 누비는 탱크를 닮았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 후로도 황금빛 들녘을 달리며 위용을 과시하는 콤바인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계라며 감탄하곤 했다.

기계화 작업이 더뎠던 우리 농업은 콤바인 탄생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급속하게 기계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콤바인 생산이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이는 농업 기계화 역사를 주도한 농기계 회사의 연보에서도 확인되는데, '대동기업'은 1962년 손수레를 대신한 경운기를 생산하고, 이어 1968년 농업용 트랙터를 개발한다. 그리고 대망의 1982년에는 콤바인이 탄생했다.

이처럼 콤바인의 출현은 우리 농업 기계화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콤바인은 농작물을 베는 일과 탈곡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농기계가 논 위를 주행하면서 벼·보리·밀 등의 곡물을 베고, 이어서 탈곡을 하고, 선별과 정선을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동시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콤바인이라는 명칭 역시 베기 작업과 탈곡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결합(combine)'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다.

한데 요즘 기계화를 통한 급속한 농업 발전에도 콤바인 같은 고마운 존재의 입지가 점점 좁

아지고 있다니 황당하다. 우리 농업의 기계화를 선도했던 농기계 보유 대수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농업인들이 보유한 트랙터와 콤바인·이앙기 등 16개 농기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주지역 농기계 보유 대수는 9429대(2010년)에서 10년 뒤에는 8394대(2020년)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7721대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0년 29만 5391대였던 농기계가 10년 뒤인 2020년에는 28만 976대로 5%가량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1% 더 줄어 27만 5138대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벼농사 감소로 논 농업 관련 농기계 수는 감소했지만, 밭 농업 관련 농업기계 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정당국은 이러한 추세에 농업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민들이 늘어나면서 농경지 자체가 감소한 데다, 스마트 팜 등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기계가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기계화에는 성공했지만, 돈으로 일꾼과 기계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 논 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 농업(63.3%) 분야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귀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결국 취약분야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한편 농업 생산의 규모화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에 매진해 농사만 지어도 잘 사는 농촌, 청년이 돌아오는 젊은 농촌, 고령의 농업인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촌으로 바뀌 가야 한다.

이것이 콤바인의 등장에 환호했던 필자나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각각 기분 좋은 추억과 희망을 선사하는 길이 아닐까. /bigkim@kwangju.co.kr

## 유명무실한 동물복지농가제...인증 농가, 전체 농가 0.5% 불과

국내 '동물복지 축산인증제(동물복지인증제)'가 전국 닭 농가에만 한정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육우, 돼지·닭·오리 사육농가가 전국의 13%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축산인증제 농가도 기대에 못미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복지인증제 인증 농장은 지난 7월말 기준 469개로 국내 전체 농가(10만여개)의 0.5%에 불과했다.

동물복지인증제는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한 돼지·닭(산란계·육계)·소(육우·젖소)·염소·오리 등 7종류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 농가 대비 미미한 수의 농가만 동물복지인증제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10개 농장 가운데 8개 농장은 닭 농장으로, 나머지 축종 농장은 실질적으로 인증제가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농장주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사육두수 감축 등의 부담을 안지만, 이를 완화하는 지원책, 혜택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동물복지인증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를 통한 가축 사육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정부의 정책과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인증제의 성공적인 정책 안착과 향후 축산 무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신택과 제도적으로 직불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배추값 비싸도 소비자 10명중 7명 "김장한다"

배추값 급등세에도,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올해 김장을 직접 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장 규모는 배추값 등 채소값 상승과 김치 소비 감소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10·14일 가구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김장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김장을 지난해와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지

난해보다 줄이겠다는 답변은 35.6%, 늘리겠다는 경우는 10%였다.

김치 조달 형태별로 보면 '김치 직접 담근다'는 비중이 68.1%로 전년(63.3%) 대비 4.8%포인트 올랐다. 김치를 직접 담그는 이유로는 '가죽이 선호하는 입맛 고르(53.0%)', '시판 김치보다 원료 신뢰 높음(29.6%)' 등이 꼽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